

公山城에 對하여

安承周

I

公山城은 百濟 王都 熊津의 수호를 위한 중심적 據城이었을 뿐만 아니라 百濟 멸망 이후로도 公州가 가지고 있었던 人文的 내지 地理的 諸與件으로 말미암아 군사적으로 계속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왔었다. 더우기 城內에 遺存한 각 시대의 유적은 성곽 자체의 중요성 이상으로 斯界의 주목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아직껏 실시된 바 없으며 따라서 公山城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①. 최근 실시되었던 백제문화권 개발을 위한 문화재현황조사의 일환으로 公山城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조사가 진행된 바 있거니와, 본고에서는 당시 조사되었던 자료를 중심으로 비록 기초적인 것이기는하나 公山城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제공해 보려고 한다.

II

公山城은 현재 남쪽으로 公州市街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는 錦江의 南岸에 沿하여, 長軸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비스듬히 두고 위치되어 있다. 그리하여 北으로는 錦江에 의하여 차단되고 해발 110m의 公山の 險阻한 山勢를 十分 이용하여 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包谷型的 성곽이 가질 수 있는 特性, 즉 城內에 평탄대지와 구릉지 등의 공

간을 보유함으로써 「禦敵保民」이란 성곽의 본목적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 (圖 1 참조)

公山城은 백제시대 築城된 이래 여러 차례의 改修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百濟 본래의 築城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는 石城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원래는 土築이었던 것으로 믿어지며 오늘날의 石築은 대략 朝鮮 중기의 것이 아닌가 한다②. 公山城의 총연장 길이는 2660m인데 이를 土城과 石城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면 土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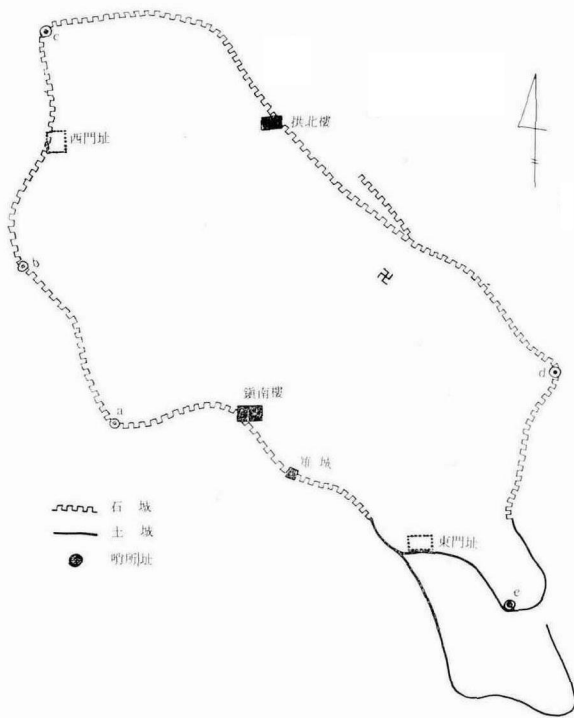


圖 1 公山城圖



圖 2 石城構築狀態(鎮南樓~東門址間)

七三五m、石城이 一、九二五m로서 전체의 七二·四%가 石城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石城中에는 보존관리의 소홀로 거의 형적을 확인하기 어려울만큼 붕괴되어 土·石城의 구분은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지점도 없지 않다.

城郭의 線은 남측의 경우 능선상에서 밖으로 약간 낮추어 경사면은 두르고 있다. 동시에 성곽의 內側은 削土하여 이를 石築의 內托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길은 壕가 형성되어 있고 反面에 外側은 급한 경사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점은 축성 당시 지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였음을 의미한다. 鎮南樓로부터 서측 二五〇m 지점에서 壕의 규모를 측정할 결과 上面너비 一六m에 깊이가 二m였다.

石城의 築城方式은 북측에 해당하는 拱北樓 부근에서 약간의 夾築法이 보이기 하나 ③ 기본적으로 土·雜石에 의한 內托이며 城石은 鎮南樓 부근의 南側에 사용된 것이 가장 고르고 拱北樓 서측 및 靈隱寺 앞의 경우 城石이 가장 크다. (圖2참조) 鎮南樓 부근의 築城狀態는 현재 新石材에 의하여 거의 改築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殘存部分의 경우를 보면 三〇×七〇cm의 길이를 가진 城石을, 長·短邊을 번갈아 성벽의 外面에 나오게 함으로써 土壓으로 인한 성곽의 붕괴를 예방하는 배려를 하고 있다. 城石 1段의 높이는 三〇cm 내외로서 대체로 全區間에 공통된다. 그러나 城石의 粗·精의 차이는 지점에 따라 차이가 크다. 拱北樓로부터 서측 一五〇m 지점 이후의 부분은 築石에 있어서 夾築의 工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城石이 극히 大型化되어 있다. 이 지점에 사용된 城石 數點을 임의 추출하여 측정해본 결과 두께 二五cm 내외에 五〇×一二〇·八〇×七五·七六×六二·七三×五六cm 등으로서 公山城에 사용된 城石으로는 드물게 보는 큰 형태이다. 동시에 城石의 모양은 板石과 같은 割石으로 되어 있어 鎮南樓 주변에서 볼 수 있는, 角을 둥글게 처리하고 面을 두툼한 弧形으로 한 城石과는 대조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城壁의 斷面形態는 수직·內傾·圭形 등의 三가지 형태가 보이며 특

히 진남부 등측에서 성곽의 底邊을 두텁게 하고 中腹을 안으로 들여밀은 圭形의 축성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보면 기단부에서 성벽 중간까지는 城石을 차츰 안으로 좁혀 쌓으면서 올랐고 중간 이상 부분은 약간 外反된 듯한 수직을 이루고 있다④. 이와같이 성곽의 배(腹)를 들여밀어笏과 같은 모양으로 축성하게 되면 성곽의 도피방지와 敵방어상의 利點을 겸하게 되는 효과를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⑤.

城幅과 城高는 위치에 따라 차이가 극히 크다. 비교적 축정이 용이한 鎮南樓로부터 서측 三〇〇m 지점의 경우 城幅 六m, 三五〇m 지점의 경우 四·二m, 그리고 성곽의 上面幅은 一·五m 정도로 나타난다. 한편 城高는 七m 내외가 되는 지점도 있으나 이는 지형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있다. 대체로 鎮南樓 좌우의 경우 城高가 높으나, 지형 자체가 天然的으로 險阻함을 이루고 있는 서북측·동북측 일대의 경우는 二m 정도의 높이에 積石 자체도 극히 조잡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다.

石城의 축조상태가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는 지점은 靈隱寺 앞 水口門 밖에 構築된 二重城中의 바깥城 부분이다. 이 區分은 바로 錦江에 接岸하여 있어서 河水가 평균투수량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물에 잠기게 되어 있고 流速 또한 급한 지점이다. 그러나 조사가간층 심한 가뭄으로 인한 錦江河水의 고갈은 그 축조상태의 관찰을 가능하게 하였다. 全長 四三m, 城高 七·四m의 이 區間은 江邊의 양측 압벽에 부착하여 축조시킴으로써 현재는 양압벽 사이에 형성된 山谷間 지대의 토사붕괴를 방지하는 축대의 역할도 겸하고 있는데 그 遺存 상태는 거의 原狀에 가깝다. 하반부는 비교적 크고 고른 城石을 잘 整列시켜 築石하였고 六m 이상은 보다 작으나 연마된 城石으로 일정하게 積石하고 있다. 이 부분은 輿地圖書에도 그 자세한 기록이 나오고 있어⑥ 일찍부터 주목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원래 이 城의 축조시에는 河水와 접촉되지 않았을 것인데 河床의 상승으로 인하여 이처럼 강물에 잠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총 二六六〇m의 구간중 土城으로 殘存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의 二七·六%에 해당하는 七三五m이다. 土城은 주로 光復樓와 東門址를 중심

으로 한 東측 구간에 二重의 城城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제 본래의 土築狀態를 전하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東門址 부근의 城城 구조는 公山城 구조상의 일 특징을 이루고 있거니와 內側城은 公山の 頂上에 해당하는 光復樓 부근의 高地帶를 경유하여 능선을 따라 鎮南樓 쪽으로 연결되고, 이 線上에 位置된 東門址에서 다시 山中腹 傾斜面을 도는 外側城이 分岐된다. 이 外側城은 全長 四六七m로서 모두 土築으로 되어있는데 後代의 방치와 田地 경작 등에 의한 지형 교란으로 말미암아 극히 頽廢된 상태에 있다.

土城의 構築은 積石石을 다수 혼합한 土石混築의 형태이며 이러한 현상은 東門址 북측 內側城의 경우 특히 심하여 土沙보다 雜石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존하는 토성의 높이는 一m 내외이며 등문지 부근에서는 성곽 안쪽에 조성된 二m 깊이의 壕도 확인된다. 土城의 城幅은 底面 六m, 上面 三m로서 底幅과 上幅이 대략 二·二의 비례를 보여준다. (圖3참조) 公山城이 이 지점에 와서 유독 二층의 城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地形상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지점의 능선의 축은 다른 지점과는 달리 완만한 경사가 계속됨으로써 적방어상의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상의 문제점을 감안, 二층의 城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III

성곽의 부수시설로는 城門과 水口門, 哨所址, 雉城 등을 들 수 있다. 城門은 城 내외의 출입 및 적의 방어와 공격에 필수적인 시설이거니와 공산성의 경우 원래 東西南北의 四處에 城門이 시설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南門인 鎮南樓와 北門인 拱北樓만이 현존하고 東·西門은 그 터만 殘存함 뿐이다. 公山城의 主門은 역시 南門과 北門이며 東西門은 그 위치상 중요성이 훨씬 덜하였으리라 짐작된다. 鎮南樓와 拱北樓는 각각 山城의 남북에 위치하여 그 初翼拱괄자지부의 樓亭 형식으로



圖 3. 東門址부근의 土城

되어 있는데 특히 拱北樓의 경우는 일반 성곽에서 보는 城門과는 달리 2층의 다락집으로서 아래층의 中央御間에는 문짝 두테구멍이 남아 있다. 이같은 城門樣式은 高敞邑城의 拱北樓와 유사한 것이다⑦. 兩門의 규모는 拱北樓가 정면 五칸 측면 三칸(九〇·五 m)이며 鎮南樓가 정면 三칸 측면 二칸(四四 m)의 규모이다. 한편 현재 남아있지 않은 東西의 兩門이 어느때 破毀되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輿地圖書의 公州物地圖에 東門과 西門에 명시된 대 비해 大東地志에서는 「南北으로 두개의 門이 있고 東北으로 水口門이 있다」고만 한 것을 보면 파괴된 시기는 輿地誌의 편찬연대를 기준으로 一七六〇년에서 一八六四년의 중간인 一〇〇여년 旅間이 될 것 같다.

현재 公山城內에는 진남루 쪽에 복원된 水口 一개소가 있고 拱北樓 서측 三〇 m 지점 및 靈隱寺 앞에 水口門址로 알려진 지점들이 있다. 공북루 옆의 경우는 현재 성벽이 절단되어 폭 一〇 m 의 江에 닿는 도로가 開設되고 부근 民家에서 나오는 汚物의 下置場처럼 되어 있어 원상의 파악이 어렵다. 그러나 현재에도 폭 五〇 cm 의 石造水構가 시설되어 있고 지형상으로 볼때 水口가 있었으리라는 점은 확실하다. 현재의 水講는 물론 근처의 것으로 보아지나 城石 등 다수의 舊石材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이 水口 밖의 汚物積置場 밑바닥에 역시 다수의 石材들이 배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靈隱寺 앞의 水口門址는 너비 二 m 로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특히 성곽의 兩端部는 대형의 석재로 築石하였는데 이는 流水에 의한 石材의 流失, 도괴의 방지를 위한 조치라 생각된다. 바닥 역시 대형의 자연석 재를 敷石하였는데 그중에는 門柱石 등으로 사용되었을 법한 석재 二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위 성벽면에는 길이 二五 cm 의 圓錐形 흙이 파인 석재가 박혀있어 역시 水口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輿地圖書에 의하면 여기서 暗門 一개가 시설되어 水口門으로 이용되었음이 확실하다.

哨所로 사용되었을 듯한 公山城內의 高台는 금번 조사에서 五個소가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성곽이 급하게 깎여지는 지점, 특별히 돌출한 지점에 위치하여 전망이 좋고 시야가 넓으며 積心石을 놓여 地盤을 단단히 다져 놓고 있다.

高台 a.. 城中心部로부터 남서측, 진남루로부터 一五〇m 지점 隅角에 위치하며 규모는 五×七m 이고 남서쪽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다.

高台 b.. 高台 a로부터 三〇〇m 북쪽이며 역시 돌출부 隅角에 자리하여 서쪽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모는 五×六m 이다.

高台 c.. 西門址로부터 북쪽 一〇〇m 지점, 동측으로 꺾여지는 隅角에 조성되어 동북측을 감시하는 초소였던 듯하며 규모는 五×七m 이다.

高台 d.. 城 중심부에서 동쪽 高地帶 돌출부에 위치하여 錦江 이북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기는 六×一〇m 이다.

高台 e.. 東門址 부근의 토성 위에 위치하여 남동측을 감시하였던 자리로 보이며 규모는 五×五m 이다.

鎮南樓로부터 東쪽 九〇m 지점에는 성곽 보수공사지 북원한 雉城 一個所가 있는데 현재에도 그 기반부와 하반 일부는 원래의 城石이 남아 있다. 雉城의 형태는 길이 九·八m 에 성곽의 선으로부터 약 三m 를 밖으로 돌출시켜 凸形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원래의 城石은 長台石과 같은 모양의 장방형에 角을 둥글게 하고 而을 孤形으로 두들리게 처리한, 잘 整齊된 것이다. 雉城은 적방어상 극히 중요한 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별로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公山城에서도 一個所만이 있을 뿐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곽 자체가 雉城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의 필요가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이 ⑧. 한편 輿地圖書에 의하면 「堞八百五堞」이라 하여 성곽에 女壇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⑨ 현재 그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IV

본고에서는 公山城의 축조 내용과 그에 부수된 여러 시설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公山城은 오랜동안 관심의 不在로 放置되어 왔던 까닭에 거의 전면적인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일 뿐 아니라 도로의 개설, 宅地造成, 果園·田地耕作 등으로 말미암아 지형의 변경은 물론 城内外 유적이 파괴 인멸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城内에는 현재 사찰·樓亭·碑石·樓亭址·推定軍倉址를 비롯하여 臨流閣址·蓮池址 등 백제시대 이래의 각종 遺蹟이 잔존되어 있으며 이러한 城内史蹟에 대해서는 차후 別稿를 기하여 詳述할 생각이다.

註

- ① 公山城에 대한 학술적인言及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史蹟篇(下), 一 九七六에서의 설명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한다.
- ② 그러나 石築이라 하더라도 地形上的 문제 때문에 既存의 土城을 전혀 무시한 改築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북측 拱北樓 부근에서 나타나는 夾築은, 다른 지점과는 달리 이 일대가 低平한 지대로 開放되어진 地形上的 이유 때문인 듯하다. 공북루 좌우의 一〇〇m는 公山城 內에서 가장 저평한 지역이며 錦江河流에 접하여 있고 이 때문에 城內에 형성된 취락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
- ④ 이 부분은 보수공사시 일부 개축이 시행되었지만 원래의 축성방식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 ⑤ 五華城城役儀軌 卷一 御製城華壽略
- ⑥ 「東北間水口門外 鑿一池 築外城 長三十五木 五十二尺 四十四步 高六丈十八尺 八步半 塋塚三十堞」(輿地圖書 公州牧 城池條)
- ⑦ 文化財管理局, 文化財大觀 史蹟篇(下), pp 一六二~一六五 「高敞邑城」 참조
- ⑧ 「雉城」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참조
- ⑨ 輿地圖書 公州牧 城池條

(公州師範大學 附屬博物館長)